

空間概念 안에서의 神 概念에 關한 象徴的 理解

金 銀 用*

序 文

1. 神 概念의 始作
2. 觀念的인 두 個의 世界
3. 象 徴
 - a. 象徴과 表識
4. 宗教的 象徴
 - a. 象徴이 實在에 參與하는 機能
 - b. 象徴이 實在의 層을 開關하는 技能과 靈魂을 開關하는 機能
 - c. 象徴이 集團潛在意識 안에서 成長(消滅)하는 機能
 - d. 象徴은 살아 움직이는 存在
5. 結 言

序 文

어떤 文化의 形態고 그것을 研究하면 그 根柢의 精神은 宗教的 色彩가 짙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를 研究함은 그 文化의 本質을 研究함과 다를 바 없다.¹⁾ 그러나 여기서는 그 文化를 研究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內包하고 있는 神概念에 關한 研究와 그 重要性에 關한 것이다.

어떤 神을 信奉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人格, 한 社會의 文化的 特性을 짐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重要性에 비추어 사람들에게 神을 올바로 認識케 하는 일은 대단히 重要的인 일이라 생각된다. 이 점에 있어서 現代神學者들 중에 폴·틸릭(Paul Tillich)의 象徴的 神 理解는 큰 意味가 있다.

1. 神 概念의 始作

‘神’ 概念은 모든 사람들에게 可能하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가장 貴重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따금 다음과 같은 質問을 한다. “나

* 文理科大學(大田) 敎授

1) Paul Tillich, What Is Religion? (New York; Harper & Raw; 1969), p. 73. “...culture is a form of expression of Religion, and religion is the substance (*inhalt*)”.

는 무엇일까?” “왜 살까?” 勿論 이 質問의 正答은 없다. 그러나 약간의 사람들에게는 正答 대신 回答이 可能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自問하고 自答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自問을 할 때 그것을 풍선처럼 虛空에 띄워 버리지 않는다. 反復하여 되새길수록 그 뜻은 깊어지고 어디론가 向하게 되어 마침내는 어떤 限界點에 이른다. 그 限界點 너머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 어떤 것(Something)이 있어 보이고 없는 것이란 없을 수 없다(not nothing). 왜냐하면 그 곳에서부터 오는 “힘”을 느끼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그것이 衝擊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形而上學的 衝擊²⁾이라 하자. 이 衝擊은 存在論的 물음의 回答일 수도 있고 衝擊을 可能케 하는 存在自體(being-itself)에 관한 느낌이기도 하다. 衝擊을 可能케 하는 存在自體와 現像的으로 나타나는 느낌 혹은 ‘있음’(beings) 사이에는 相互密接한 關係가 있다.

즉, 現實을 悲觀하는 사람에게 所望의 神이 있을 수 없고, 現實을 樂觀하는 사람에게 絶望의 神이 있을 수 없다. “神”이 “있다”, “없다”해도 衝擊은 여전히 可能하다.

2. 觀念的인 두 개의 세계

앞에서 찾아낸 “衝擊을 可能케 하는 存在自體”를 여기서는, 觀念空間에 모시는 일이다. 問題는 이 觀念空間을 어떻게 設定할 것인가?

회랍 哲人들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歷史적으로 대강 간추려 보면, 플라톤(Platon)은 理想(ideal)과 現像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세계를 設定했다. 아리스토텔(Aristotle)은 型態(form)와 實物(matter)로 구분했고, 現代實存主義者들은 本質과 實存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이 세계의 關係를 解明하는 데는 다르다. 쉐링(Schelling), 키엘케골(Kierkegaard), 하이덱가(Heidegger) 같은 사람들은 두 세계가 서로 對立(contrast)한다고 했고 스피노자(Spinoza), 헤겔(Hegel)은 本質로부터 實存으로 誘導된다고 보았다. 듀이(Dewey), 사르트르(Sartre)는 反對로, 實存에서 本質이 誘導된다고 했다.

위에서 본대로 두 개의 세계가 可能한 것만은 事實이다. 다음 問題는 이들을 어떻게 連結시키느냐? 모든 것 “(thing)”은 다 “質(quality)”을 가졌다. 그래서 “것”은 “質”에 參與하고 있다. 마치 物品을 보고 그 品質을 生覺해 낼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問題는 어떻게 質의 界(本質)를 實存으로부터 구분할 것인가? 抽象(abstraction)이나 直觀(intuition)으로 中間過程(價値觀의 妨害)이 없이 論理的인 理想界³⁾에 到達할 수 있기 때문에 “質”을 “品”의 過程이 없

2) Paul Tillich, *Systemic Theology*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6), Vol. I, p. 163. “The ontological question, the question of being-itself, arises in something like a metaphysical shock—the shock of possible nonbeing.”

3)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I, p. 203. “..., in the first case essence is a logical ideal to be reached by abstraction or intuition without the interference of valuations”.

이 生覺해 낼 수 있다.

다음으로 實存界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本質”안에 “있음”을 찾아내는 可能性을 말한다. 이것은 本質界(The realm of essence) 안에 있는 潛能力(Potentiality)의 實現可能性(Actuality)을 意味하고, 또 本質에서 “떨어져 나온 世界(the fallen world)를 意味한다. 그러므로 實存은 實存하는 條件이 確認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두 개의 世界가 可能하다면 다음 問題는 “神”을 어디에 모실까? (“神”의 空間的 位值) 答하기 앞서 “神”의 實存(the existence of God)을 밝힐 必要가 있다. 정말로 神의 實存이 可能한가? 일찌기 스콜라(scholar) 神學者들은 神의 實存과 本質의 差를 認定치 아니했다. 그러면서도 神의 實存을 主張했고 이에 關하여 論하기를 즐겨했다. 사실 그들이 意味한 것은 “神”의 實存이 아니라 “實在(the reality)”를 意味한다. 이와 같은 것은 “神”의 概念(the dea of God)이지 그 自體가 “神”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따금 “神(自體)”과 “神”의 概念에 關하여 使用할 때 混同한다. 폴·틸릭은 “神”은 實存하는 것이 아니라 그(神)는 本質과 實存을 超越해서 “있는(being)” 存在自體(being-itself)⁴⁾로 보았다. 그러므로 “神”이 “實存”한다 함은 그를 否定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폴·틸릭 말대로 “神”을 存在自體라 할 때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空間觀念 속에 이끌 수 있을까? 內在(immence)와 超越(transcendence)은 훌륭한 空間 概念을 가진 用語다.

內在는 實在와 衝突 속에서 찾는 하나의 層이요, 超越은 우리들이 부딪치는 經驗의 實在를 超越한 다른 하나의 層이다. “神”이 後者の 層에 實在하므로 그는 우리의 有限界를 超越했다. 그래서 “神”은 우리의 觀念의 空間위에 있음(being)이다. 좋은 例로, “神”은 그의 聖子를 世上에 보냈다(God has sent his son). 여기 “has”란 動詞는 有限性を 지녔고 “神”은 이 有限性を 超越해 있다. 그리고 그의 聖子를 世上에 보냈다(Sending)는 것은 한 空間에서 다른 空間으로 移動시켰다는 것을 意味하므로 훌륭한 空間觀念이 可能하게 되었다.

內在의 層에도 훌륭한 空間觀念과 時間觀念이 可能하다. 聖子の 化肉의 教理(incarnation)는 그가 時間과 空間 안에서 轉換된 重要한 例가 된다. 그러므로 “神”은 世界 안에(in) 혹은 世界 위에(above) 또는 兩便(both)에 다 “있다(b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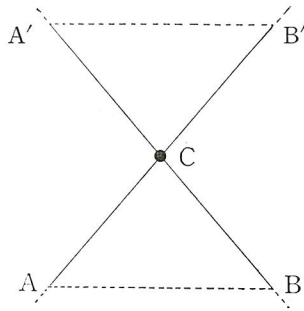
지금까지 空間觀念 속에서 “神”의 位置에 關하여 觀念적으로 論했는데 다음은 그림으로 그 內容을 定理하는 意味에서 “神”과 “空間”의 關係를 表示하고자 한다.

첫째, 空間觀念에 있어서 實存의 限界를 $\triangle ABC$ 라 한다면

① $\triangle ABC$ 는 하나의 現勢態(actuality)이다.

② 現勢態를 위해서 潛在態는 必然적으로 있어야(being-itself)한다 ($\triangle A'B'C$).

4)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I, p. 205. “God does not exist. He is being-itself beyond essence and existence.”



③ 本質界의 潜在力은 現勢態의 實存의 限界가 넓어짐에 따라 더욱 더 強力하다.

둘째, “神”의 空間的 正位置가 有限과 無限의 限界點 C라 하면,

① 그는 有限을 超越했고

② 그는 有限界의 모든 “있는 것(all beings)”의 總集合點인 最高의 存在者 (the highest being)⁵⁾이다. 그러므로

前者는 後者 안에 있다.

③ 그는 兩領域에 屬하여 있다. 即 $\triangle ABC$ 와 $\triangle A'B'C$ 는 C點으로 連結되어 있다.

3. 象 徵

“神”은 超越者, 內在者 등으로 된 그의 屬性을 意味할 뿐 그 自身은 아니다. 폴·틸릭은 “神”을 모든 存在의 自體라 했지만 그것 역시 어떤 範疇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고 “神”을 친구나 물건처럼 우리옆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를 이름 하는것으로는 存在自體(being-itself)가 가장 적당한 단어다.

문제는 存在自體가 “참神”이냐는 것이다. 勿論, 存在論的 信仰을 가진 사람은 “참神”으로 부를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참神”이 있고 그의 이름을 存在自體라 할 때 存在自體는 ‘참神’을 象徵하는 것이 된다. 둘째 存在自體를 ‘참神’이라 할때, 그가 과연 人格的인 “참神”으로 되겠는가? 前者는 象徵的이라면 後者는 非象徵的이다.

非象徵的인 경우는 絶對的인 信仰人들에게 局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普遍性이 可能한 象徵的 “神” 解明을 택한다.

象徵이란 “어떤 것(something)”이 “다른 것(other)”을 代身하는 일이다. “다른 것”은 “어떤 것”의 象徵的 對象으로 抽象的이다. 비둘기는 平和를 象徵하기 때문에 平和를 갈망하는 우리 마음에는 이것을 볼 때마다 애착이 가고 平和에 관한 많은 意味를 준다.

a. 象徵과 表識

“象徵”(symbol)이란 用語를 使用할 때 흔히 表識(sign)과 混同하기 쉽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共通點이 있다.

5)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I, p.235. “If God is a being, he is subjected to the categories of finitude, especially to space and substance. Even if he is called the highest being in the, sense of the ‘most perfect, and the ‘most powerful’ being, this situation is not changed”.

象徴과 表識은 그들의 裏面에 어떤 다른 것을 指示한다.⁶⁾ 後者의 例를 交通信號燈으로 들 수 있다. “푸른[靑] 불”은 “가시오”의 表識이다. 前者의 경우 國旗는 한 國家를 象徴한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裏面에 있는 것을 指示한다.

그들의 서로 다른 點은 무엇인가? 表識은 그 裏面에 있는 것만을 指示할뿐 象徴과 象徴物과의 必然的인 關係를 要치 아니한다.⁷⁾ 푸른 信號燈은 “가시오”만 指示할 뿐 그 以上の 것 은 없다. 그러나 象徴은 다르다. 象徴은 이것이 指示하는 實在에 參與한다. 한 나라의 國旗는 그 나라의 尊嚴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그 國家가 存在하는한 國家의 象徴인 國旗는 存在한다. 그러나 表識에 있어서는 다르다. 주어진 目的의 便宜에 따라 그 屬性은 變化된다. 푸른[靑] 信號燈만이 “가시오”를 意味치 않는다. 때와 장소에 따라 草綠色 信號燈도 “가시오”가 될 수 있다.

“神”은 모든 宗教에 있어서 훌륭한 하나의 象徴이다. 많은 사람들이 “神”의 이름을 쓰고 [記錄] 부를 [告白]때 그의 神的 能力에 參與되어 뜨거움을 느낀다. 여기에서 “神”을 象徴으로 할 때 “神”에 關한 새로운 解明이 可能하다.

4. 宗教的 象徴⁸⁾

人間은 어떤 宗教的 體驗을 할 때 어떤 것(something)을 느낀다. 따라서 그는 그 對象에 關與(concern)되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關與와 對象을 分離해서 생각할 수 없다. 오히려 둘을 合한다면 “關與한 內容”이다. 關與한 內容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더 深奧함을 느끼고 마침내는 窮極에 到達될 때 폴·틸릭은 “神”이라 했다. 聖書의 表現으로는 “.....첫째는 이것이니.....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⁹⁾

모든 宗教的인 것을 窮極的 關與에서부터 始作된다고 생각해 보자. 宗教的(Religious)일 경우는 “神”이 되어야하고 宗教學(Religion)일 경우 첫 表準(the first criteria)이 되어야 한다. 問題는 내가 窮極的으로 關與한 것이 나의 存在樣式에 어떤 影響을 주느냐? 폴·틸릭은 “우리들의 窮極的 關與가 우리들의 存在 혹은 非存在를 決定 해준다”¹⁰⁾고 보았다.

6) Paul Tillich, “Religious Symbol and Knowledge of God,” *The Christian Scholar* Vol. XXXIII No. 3, p. 189. “...both symbols and signs point beyond themselves to something else.”

7)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I, p. 239. “Special emphasis must be laid on the insight that symbol and sign are different; that, which the sign bears no necessary relation to that to which it points, the symbol participates in the reality of that for which it stands.”

8)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I, p. 239. “Therefore the religious symbol, the symbol which points to the divine can be the true symbol only if it participates in the power of the divine to which it points.”

9) 마가복음 12 : 29 30

10)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I, p. 14. “Our ultimate concern is that which determines our being or not-being”.

우리의 實存(Existence)과 存在(being)도 窮極的 關與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다. 實存은 窮極的 關與가 없이 事物과 事物이 서로 作用을 주고 받을 때(threatened and saved)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存在는 다르다. 窮極的 關與를 함으로만이 存在의 作用을 받는다. 이것을 熱望할 때 “힘”을 얻어 끊임없는 對話가 이루어진다. 이런 狀態가 信仰으로 理解된다. 그 狀態란 窮極的으로 關與하고 있음(being)이 “being”을 “Being”으로 하여 “神”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神”을 信仰의 次元에서는 窮極的 關與, 存在論에서는 “Being”으로 함은 立場과 必要에 따라 “神”의 이름이 얼마든지 더 많은 이름으로 可能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는 意味는 “神”의 이름은 象徴的인 것이다. “神(God)”까지도 “참神”을 象徴하는 이름이다.¹¹⁾ 그래서 象徴만이 “참神”을 解明할 수 있을 것이다.

象徴은 次元이 다른 “것” 혹은 “곳”을 連結해준다. 國家와 그 國家의 尊嚴은 國旗가 連結한다. 卽 한 現象의 抽象을 象徴으로 表示된다. 그러므로 象徴은 兩面的이다. 하나는 現象을 指示하고 다른 하나는 抽象을 指示한다. 前者는 有限하고 後者는 無限하다. 따라서 象徴은 兩 領域을 맞 통할 수 있는 仲裁的 機能을 가졌다. 이런 意味에서 볼때 象徴이 가지고 있는 宗教的 意味는 크다.

무엇이 되었든지 自然物, 動物, 人間 宗教的 象徴이 될 수 있다. 이들은 人間을 위하여 神性を 指示해주고 神性を 위하여 人間의 마음을 開放해 준다.¹²⁾

“神”이 天父(Father)로 象徴되었다면 그는 人間的인 父와 子의 關係로 우리의 마음을 開放하여 이 關係 속에서 그의 神性を 맛본다. 다른 한편 天父가 神을 위한 象徴이라면 父權(天父되심)은 神律의 深遠에서 탐구되어야 한다.

다음은 宗教的 象徴을 機能別로 分析하여 定理한다.

a. 象徴이 實在에 參與하는 機能

象徴은 自身이 指示하는 것에 參與한다.¹³⁾ 指示되고 參與되는 “곳”과 “것”은 勿論, 指示하고 參與하는 便과는 다른 次元이다. 한 次元에서 다른 次元으로 卽 有限에서 無限으로, 그 無限은 限없는 神秘로 가려져 있는 곳이다. 人間은 이곳을 파헤치려 끈질긴 努力을 해왔다. 그러나 그곳의 秘密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努力은 한번도 포기되지 않고 있다.

問題는 人間의 技能은 制限되어 有限하다. 有限 속에서 無限의 秘密을 어떻게 알 수 있을

11) Paul Tillich, “Symbols of Faith” *Religious Language* ed. by Ronal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nd.), p. 139. “For God! God is symbol for God”.

12)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I, P. 240. “They (religious symbols) open the divine for the human and the human for the divine”.

13) Paul Tillich, “Symbols and Faith”, p. 137. “It participates in that to which it points...”

가? 여기에서 人間의 技能을 補充할 象徴이 必要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지는 機能은 대단히 重要的 것이다. 왜냐하면 象徴 自身이 指示하는 實在에 參與할 뿐 아니라 이 能力에 까지 同參하고 있다. 그래서 때때로 象徴을 誤認해서 象徴 自體가 神의 能力을 지닌 것처럼 만든다. 基督教의 十字架는 하나의 象徴이다. 그 自體가 “神”의 能力을 지닌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 象徴을 通하여 그 裏面에 숨겨진 수 많은 뜻을 찾는 일이다.

宗教的 象徴이 實在에 參與하는 機能을 定理하면 :

第一定理 “神이 하나의 象徴이라면 그것이 指示하는 것의 實在에 參與한다.”

위의 定理의 特性을 象徴하는 데는 반드시 條件이 주어져야 한다 (X가... 象徴 이라면, ... 實在에...). 이 定理를 公理化하여 神만을 象徴할 뿐 아니라 다른 것에도 活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公理第一: “만일 X가 S 라면, S가 指示하는 것의 實在에 參與한다.

b. 象徴이 實在의 層을 開關하는 機能

象徴이 自身이 指示하는 實在을 開關하는 機能은 이것의 機能 중 가장 實感있고 比重이 큰 機能이다. “우리들에게는 이영 閉鎖된 實在의 層을 開關한다.¹⁴⁾ 다른 어떤 方法으로도 開關 不可能한 그곳을 象徴만이 可能하다.

그러면, 먼저 開關해야 할 그 層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보다 깊은 層의 實在(reality in deeper levels)요, 다른 하나는 특별한 層안에 있는 人間靈魂(The human soul in special levels)이다. 前者, 實在의 層 안에는 無限한 可能性이 넘쳐 흐르는 潛在力이 풍부하고 神秘한 곳이다. 特別한 宗教的 象徴이 아니더라도 藝術的 象徴으로도 그 곳을 開關한다. 詩, 그림, 音樂 等等으로 그 곳의 秘密을 開關해준다. 詩를 읽을 때, 그림을 볼 때, 音樂을 들을 때 冥想에 잠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層의 開關이 可能한 것은 아니다.

宗教的 開關의 機能에 關해서 예수 的 比喻 中에서 다음 例를 들 수 있다. “하늘 나라는 마치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發見하면 다시 묻어 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¹⁵⁾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은 훌륭한 天國의 秘密을 開關하는 象徴이다. 폴·틸릭은 우리에게 閉鎖된 그 곳을 “實在의 深遠次元(the depth dimension of reality)”이라 했다.

이 次元은 다른 모든 次元의 根源이 되고, 다른 次元과 層을 나란히 할 수 없는 基本的인 層이다. 存在論的으로 말하면 “存在自體의 層”(the level of being itself)이라 할 수 있다. 다

14) Paul Tillich, “Symbols of Faith.” op. cit. p. 137. “Third character of a symbol is that it opens up levels of reality which otherwise are closed for us.”

15) 마태복음 13 : 44

른 한편 相對的인 “存在의 層”(the level of being)도 가능하다.

比喩 中에서 “집에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보물을 얻으려는 그 사람이 처해 “있음(being)”의 狀態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所有, 狀況)을 다 팔았다. 그러므로 그의 存在는 그의 狀況을 決斷한다. 따라서 狀況層은 存在에 依存되어 있다. 이것을 “存在의 層”이라 하자. 다음으로 “存在自體”의 層은 “하늘 나라”로서 “밭에 묻혀 있는 보물”로 比喩했다. 이 보물은 그 사람이 熱望하여, 그의 所有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는 決斷을 내리게 했다. 다시 말하여 그의 모든 存在를 決斷하는 根源은 밭에 묻혀있는 보물이다. 그 곳은 “하늘나라”요 “存在自體”의 層이다.

지금까지 象徴이 그 自身이 指示하는 것의 層을 開關함에 있어서, 指示되는 層을 “存在自體의 層”으로 하고 이것을 說明하기 위하여 相對的인 存在의 層을 두었다. 다음은 이 兩層을 連結하여 開關하는 象徴의 機能을 밝히고자 한다.

基督敎의 十字架 像은 存在自體의 層을 開關할 수 있는 훌륭한 象徴이다. 이 象徴이 開關한 그곳은 어떤가? 基督敎의인 表現으로 “聖(the holy)”이라 하자. 그렇다면 “聖”은 存在自體의 層 안에서 窮極的 實體(the ultimate reality)요, 모든 存在를 可能케 하는 “窮極的 힘(the ultimate power of being)”이다.

다음은 層 안에 聖은 어떻게 表現 되는가? 여기에는 “聖性(the holiness of the Holy)”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十字架 象徴은 그 自體가 “聖”化 될 수 없다. 다만 여기에서 “聖性”을 느낄 뿐이다. 過去 歷史를 通하여 많은 偶像과 人間英雄을 神으로 하는 잘못은, 그들을 모두 “聖”化했기 때문이다.

人間은 窮極的으로 關與하므로 “聖”에 接할 수 있는데, 이것을 폴·틸릭은 “質”로 보았다. 그는 말하기를 “聖은 人間에게 窮極的으로 關與케 하는 것의 質(quality)이다”¹⁶⁾라 했다. 이 “聖”의 “質”은 聖性(holiness)으로 表現된 經驗된 現像(an experienced phenomenon)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聖性은 本質的인 “聖”을 認識하는데 重要한 資料가 된다.

둘째는 特別한 層에 있는 人間靈魂을 開關하는 機能이다.

象徴의 開關의 機能은 兩極的이다. 한 極은 象徴이 指示하는 實在를 開關하는 技能이요, 다른 한 極은 人間의 特別한 層에 있는 靈魂을 開關하는 機能이다.¹⁷⁾ 前者는 無限하고 後者는 有限하다. 이 有限 속에 있는 人間靈魂의 深遠을 開關한다.

여기서는 먼저 人間靈魂에 關하여 알아 보고 다음에 이것을 開關하는 機能을 밝힌다. 基督敎의 傳統的 敎理에는 神은 人間을 完成하기 위해서 不滅의 靈魂(immortal soul)을 더 해주셨다. 이 靈魂은 神의 屬性인 聖靈(spirit)¹⁸⁾을 生活 속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靈魂

16)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bl.I. p.215

17) Paul Tillich, “Religious Symbols and Our Knowledge of God”, p.191. “The opening up is a two-sided function—namely—reality in deeper levels and the human soul in special levels”.

은 二元的 技能을 담당하여야 한다. 하나는 神의 聖靈(Spirit)에 接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의 屬性(spirit)을 生活속에 나타내는 일이다. 前者의 機能을 담당할 경우 靈魂은 不滅的(immortal)이고, 後者の 것을 담당할 경우 그것은 滅性(mortal)이라 하자. 그렇다면 靈魂은 不滅次元과 滅次元으로 兩分되었다는 것인데 前者는 後者로부터 閉鎖되었다는 것이다. 靈魂이 意識할 수 있는것은 限定되어 있다.

다른 한편 聖靈(Spirit)과 接한 不滅의 靈魂 속에 閉鎖된 無限을 어떻게 開關할까? 이 機能은 앞서 말한 象徵이 指示하는 그 實在를 開關하는 機能과 同一하므로 여기서 다시 反復을 피한다. 다만 그 機能을 하나로 定理하면 :

象徵定理 第二 “神”이 象徵이라면, 그는 自身の 裏面을 指示하여 보다 깊은 層에 있는 實在와 特別한 層에 있는 靈魂을 開關해 준다.”

이것을 一般化를 위하여 公理하면 :

象徵公理 第二 “X가 S 라면 X는 그 自身の 裏面을 指示하고 보다 깊은 層에 있는 實在와 特別한 層에 있는 靈魂을 開關한다.”

c. 象徵이 集團潛在意識 안에서 成長하는 機能

象徵은 하나의 사람들의 “對象”으로 存在하기 때문에 그들의 主觀과 이것에 주어진 環境에 따라 成長하고 消滅한다. 하느님과 上帝는 다 같은 神의 이름이나, 基督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唯一神으로 부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더욱 더 普遍化되어 가고 있다.

여기서 象徵과 表識은 集團潛在意識을 表準으로 하여 그들의 差異가 구분된다. 表識은 集團의 決議에 따라 쉽게 創案하여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이 必要가 없을 때는 없이한다. 그러나 象徵은 그의 出生, 成長, 消滅이 集團潛在意識과 有機的 關係를 가지고 있다.

그 有機的 關係란 첫째, 集團潛在意識은 그 象徵에 同意¹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象徵인 太極旗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하나의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임의로 創案될 수 없다. 創案된다 해도 결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둘째 有機的 關係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共感이다. 이 共感은 集團을 可能케 하는 하나의 至上命令이다. 이스라엘 民族은 야웨神의 至上命令으로 三千五百餘年이 지난 오늘날까지 強力한 集團을 이루고 있다. 韓國 新敎의 “하나님 神”보다는 舊敎의 “하느님 神”이 더 抱括的이

18)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I, p. 21. “The word ‘Spirit’ and ‘Spiritual’ are used only for the divine Spirit and its effects in man, and are written a Capital ‘S’. The Question then is, Should and can the word ‘Spirit’ designating the particularly human dimension of life, be reinstated? There are strong arguments for trying to do;...”

19) Paul Tillich, “Religious Symbols and Our Knowledge of God”, p. 192. “It is not invented intentionally; and even if somebody would try to invent a symbol, as sometimes happens, then it becomes a symbol only if the unconscious of a group says ‘yes’ to it”.

고 우리들의 마음을 끄는 것도 그런 理由일 것이다.

위의 同意, 共感 等은 그들 自體가 潛在意識은 아니다. 이곳으로부터 나타난 現勢態이다. 實은, 潛在意識은 단순한 潛在態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潛在態)은 現勢態의 印像으로 彩色되어서는 안된다.²⁰⁾ 이 潛在態가 어떤 集團意識으로부터 나타날 때 象徴의 出生, 成長이 可能하고 이것이 희미해질 때 消滅한다.

또 集團潛在意識은 그 集團의 自然環境과 文化와 密接한 關係가 있다. 文化의 發展과 더불어 意識도 變한다. 왜냐하면 그 意識의 形成은 現像의 經驗으로부터 온다. 하나의 實例로 多神은 文化의 發展과 더불어 서서히 消滅되어 갔다.

위의 것을 간단히 定理 하면 :

象徴定理 第三: “神이 象徴이라면 그는 自身の 裏面을 指示하고 이것은 意圖的으로 다른 것으로 代置할 수 없다”.

위의 定理를 一般的인 公理로 定理하면 :

公理 第三: “X가 S 라면, X는 X의 裏面을 指示하고, X는 意圖的으로 다른 것으로 代置할 수 없다.

d. 象徴은 살아 있는 存在(living being)

存在는 窮極의 關與의 內容으로부터 始作했다. 사람은 없는 “있음”을 向하여 窮極的으로 關與하는 일은 없다. 必然的으로 무엇이 있기에 關與하기 마련이다. 이 “있음”(存在)을 象徴으로 어떻게 살아있는 存在로 解明할 것인가?

① 象徴은 하나의 存在로 서로 다른 次元을 連結하여 층으로 항상 움직인다. 窮極的으로 關與한 內容이 “있음”이라는 그 “있음”(being)도 사실은 象徴的인 表現이다. 그 “있음”을 神으로 혹은 窮極으로도 부를 수 있다.

窮極的 關與를 다른 描寫的인 表現으로는 그가 經驗한 最高의 “質”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宗教의 體驗에서 神을 “사랑” “慈悲” “無所不在” “無所不至” “全知全能” 等으로 告白한다. 本質的으로 同一한 神을 여러가지 “類”로 體驗했다면 그 類는 그 質에 參與되어 있다.

② 象徴은 하나의 存在로 서로 다른 次元을 開關해 준다. 開關하는 對像은 兩極的이다. 象徴이 指示하는 것의 實在와 特別한 層에 있는 靈魂을 兩極으로 할 때 象徴은 兩者를 開關하여 서로 相通(communion)케 한다. 예수의 말씀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²¹⁾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는 세 語句는 開

20)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I, p. 179. “The unconscious is mere potentiality, and it should not be painted in the image of the actual”.

關의 連續性을 준다. 즉 “主”가 내 靈魂을 開關해야 神도 내 靈魂 앞에서 開關이 된다. “主”는 한 存在로 살아 움직이지 않는 限 兩極의 어느 쪽도 開關이 不可能하다. 더우기 狀況이 달라져서 靈魂의 開關이 不可能할 때 象徵은 消滅된다.

以上の 것을 간단히 定理 하면 :

象徵定理 第四：“神이 하나의 象徵이라면 그 自身の 裏面을 指示한다. 그런데 狀況이 變 할 때 象徵은 成長하기도 하고 消滅하기도 한다.

위 定理를 一般化를 위하여 公理하면 :

公理 第四：“X가 S라면, X는 그 X 裏面을 指示 한다. 그런데, 狀況이 變 할 때 X는 成長하기도 하고 消滅하기도 한다.

結 言

폴·틸릭의 存在論的 立場에서 象徵的 神 解明은 傳統的 絶對神의 矛盾을 克服했다. 現世에서 神을 實存으로 理解하려는 것이나 他界로 絶對化하는 것은 最善의 것인 것 같이 보이거나 오히려 時代에 뒤떨어져서 生氣없는 古物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多幸한 것은 틸릭의 存在論的 神解明은 神에 關한 새로운 意味를 發見하게 되었다. 그러나 傳統的인 矛盾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것을 克服한 것이 神을 象徵的으로 解明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象徵主義者로서 神을 解明한 것은 아니다. 存在論으로 解明不可能한 점에 이르러 象徵을 한 方法으로 活用한 것 뿐이다. 그의 神概念은 어디까지나 存在論的이다. 存在論的 물음으로부터 神概念이 始作된다. 問題는 存在論的 물음은 하는 사람에게만 神概念이 可能的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의 象徵的 神解明은 存在論的인 물음과 그 體驗에 없더라도 第三者로서 그들이 體驗한 事實을 客觀的으로 理解가 可能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神解明은 本質的으로 傳統的 信仰이나 敎理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지 아니한다. 이미 주어진 神을 存在論과 그것을 象徵으로 解明한 것 뿐이다.

다른 한편 存在論이 아닌 다른 認識論的 立場에서 象徵主義的 神認識이 可能하리라 생각된다. 이 點에 있어서는 화이트헤드(A. N. Whitehead)의 認識論과 觀念論을 活用하자.

어떤 對象(象徵)을 知識으로 經驗하는 데에는 두개의 領域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物理的 豫識(Physical prehension), 다른 하나는 觀念的 豫識(Conceptual prehension)이다. 위의 두 개의 機能은 認識過程上 認識 直前に 있어야 할 心的豫識(apprehension)이다. 問題는 兩領域의 豫識 對象이 各各 다르다. 物理的 豫識領域을 通하여 들어오는 것은 實在로 일어난

21) 요한복음 14:6-7

事件(actual occasion)이고 觀念的 豫識領域에서 들어오는 것은 永遠한 目的(eternal object)이다.²²⁾ 神概念은 後者의 領域에서부터 일어난다.

이 豫識은 各各 세 가지 機能을 감당하고 있다. 첫째 主格的 機能(subject) : 對象을 豫識하는 主格, 둘째 豫識이 되어지는 對象으로 資料(datum), 셋째 그 主格이 對象을 어떻게 豫識했는가의 主格型態(subjective form)이다. 이 主格型態은 어떤 目的을 했느냐에 따라 그 型態의 質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感情, 價値, 目的 等等은 사람의 目的하는 바에 따라 다르다. 이것은 主格型態을 定하는 論理的으로는 前提요, 意識적으로는 느낌을 誘惑하는 “미끼”(a lure for feeling)이다. 그래서 主格型態가 어떤 前提, 어떤 느낌을 했느냐에 따라 主格目的(subjective aim)이 定해진다.²³⁾ 다시 말하여 認識하고자 하는 對象이 兩 豫識領域을 通하여 傳達된다 해도 主格目的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것은 定해진다. 「權能의 神」을 믿는 사람은 神을 權能으로 前提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權能이란 象徴的의이다. 그러므로 人間의 모든 表現(用語, 態度 等等)은 象徴的인 것이 아닌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經驗을 意識할 때 象徴적으로 作用한다. 即 象徴과 象徴이 意味하는 것이 있다. 前者에서 後者로 有機적으로 轉換할 때 象徴的 指示(Symbolic reference)라 한다. 問題는 認識하는 者(perceptient)의 本質에 따라 象徴的 指示가 定해진다.²⁴⁾ 예를 들어 十字架는 하나의 象徴이다. 이것의 意味는 그리스도의 受難이다. 示 그러나 이 象徴的 指示의 效果는 認識하는 者의 本性(質)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선 認識은 主格과 對象사이에 일어나는 內面的 關係이다. 이 內面的 關係는 認識과 觀念으로 나타난다. 첫째 認識에 있어서는 象徴(datum)이 認識되는 데는 두 要件이 있다. 이 空間은 그 對象의 質²⁵⁾ 을 느낌(感覺)으로 그 空間을 克服한다. 나는 집에 앉아서 教會 벽에 걸려있는 十字架를 記憶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十字架의 참뚝(質)을 느끼지 않는 限 그것은 나와 먼 거리에 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質”은 象徴과 이것의 認識者 사이에 일어나는 有機的 關係이다. 다시 말하여 그의 感覺的 느낌에 따라 認識된다. 이것을 感覺資料(sense-data)²⁶⁾라고 한다.

이 感覺資料가 認識者의 經驗 속에 消化되는 것을 感覺認識(presentational immediacy)라 한다. 이것은 物理的 事件으로 意識 속에 들어와 程度 높은 有機的 關係를 일으킨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感覺認識은 程度 높은 有機主義의 經驗 안에서 重要的 要因이다”²⁷⁾라고 했다.

둘째 觀念에 있어서는 그 對象의 資料는 永遠한 目的(Eternal object)이다. 이것은 事實에

22) Alfred North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57), p. 28. “Prehensions of Actual entities-i, e., Prehensions whose data involve actual entities are termed ‘conceptual prehensions.’”

23)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p. 30. “the ‘subjective aim’ which controls the becoming of a subject is that subject feeling a proposition with subjective form of purpose to realize it in that process of self-creation.”

24) Alfred North Whitehead, *Symbolism* (New York, Capricorn Books; 1959), p. 8. “This Symbolic reference is the active synthetic element contributed by the nature of the percipient.”

25) Whitehead, *Symbolism*, p. 21. “This appearance is effected by the mediation of Qualities, such as colors, sounds, taste, 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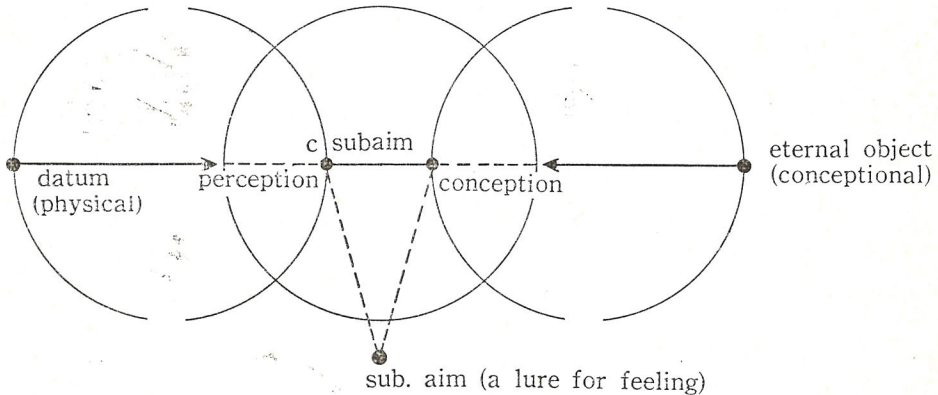
26) Whitehead, *Symbolism*, p. 231. “That the sense-data involved depended on percipient organism and ”

27) Whitehead, *Symbolism*, p. 23.

關해서 特別한 決定을 하기 위한 純粹한 潛在力과 같은 것이다.²⁸⁾ 神의 內在, 超越觀念 등은 다 여기서부터 온다.²⁹⁾ 그래서 한 對象을 認識하여 知識으로 結實을 얻는다는 認識作用과 觀念作用이 竝行되어야 한다. 그런데 前者는 後者의 觀念的 機能의 活動에 依存되어 있다. 다시 말하여 永遠한 目的을 觀念的으로 느낀다 함은 進行過程의 實現은 위한 決斷의 能力을 意味한다. 위의 認識과 觀念은 主格型態(subjective form)안에 合致하여 主格으로 어떻게 느꼈느냐는 것이고 그 主格이 느낀 目的(subjective aim)은 다른 것이다. 이 主格目的은 그 主格의 여러가지 存在를 이루는 進行過程에 있어서 그 方向에 關與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神概念에 對하여 象徴的 解明을 다음 몇가지로 定理한다.

첫째 “神”에 關한 象徴은 認識의으로 내(subject)가 接(Congress) 할 수 있는 感覺的 認識(presentational immediacy)이다.



C : Congress

i : ingression

그림 2 Congress, ingression, subjective aim 관계

둘째 “神”은 우리의 認識 밖에 存在한다. 그래서 그를 觀念的 對象으로 永遠한 目的으로 할 때 나(subject)에게 들어(ingression)온다.

셋째 “神”은 나(subject) 안에 認識的 接合(congress)과 觀念的 注入(ingression)의 主格型態(subjective form)를 이룬다. 다시 말하여 象徴과 象徴이 指示하는 意味는 接合과 注入으로 서로 交錯되어 있다. 主格目的(subjective aim)에 따라 象徴의 意味가 決定된다.

28)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p. 26. “Eternal Object or Pure Potentials for the Specific determination of Fact, or Forms of Definitions.”

29) Alfred North Whitehead, *A Key to Whitehead's Process and Reality* ed. by D. W. Shesburne (Bloomington; Indiana Univ.; 1966), p. 22. “Immanence and rranscendence are the chapacteristics of an object: as a realized determenant it is immanent; as a capacity for determination it is transcendence; in both roles it is relevant to smething noitself.”

30)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p. 30. “The Subjective aim which controls the becoming of a subject is that subject feeling a proposition with the subject form of purpose to realize it in that process of self-creation.”

Bibliography

- Tillich, P., *Systematic Theology* Vol. I-III. Chicago, Univ. Press, 1966.
- Santoni, R. E. (ed.). *Religious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68.
- Tillich, P., "Religious Symbols and Our Knowledge of God," *The Christian Scholar* Vol. XXXVIII No. 3 (Sept. 1955), pp. 188—197.
- Tillich, P., *What is Religion*. New York, Harper & Row, 1969.
- Whitehead A. N., *Symbolism*. New York, Capricorn, 1959.
- Whitehead A. N., *Process and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69.
- Sherburne D. W., (ed.). *A Key to Whitehead's Process and Reality*.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66.

Understanding the Idea of God Symbolically in a Spatial Conception

Kim, Eun-yong

Summary

The issue of understanding the idea of God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and in a variety of ways in theology, philosophy, literature, etc. At present existentialists are much concerned about the issue. One of them, Paul Tillich, has tried to explain God as being itself, in terms of his own ontology. Yet he encountered walls over which he could not leap, such as transcendence, immanence, and the like.

He wanted to proceed in his presentation with the intention of explaining concepts of God in the eternity.

1. The basic concept of symbols is that every symbol points beyond itself to a reality for which it stands.
2. The concept of symbols-four steps. The steps, by which I mean types of symbolic functions, are defined as follows:
 - a. The symbol participates in that to which it points.
 - b. The symbol opens up levels of reality which are otherwise closed.
 - c. Symbols grow out of the individual or collective unconsciousness.
 - d. Symbols grow and die like living beings.

In the conclusion I raised an epistemological question about Tillich's presentation, compared with Whitehead's Symbolism. Of course, their intentions are different in the use of symbolic references, but I discovered two similarities.

1. Tillich's 'ontological question' reminds me of Whitehead's 'the Organism of Patient ingressing the Eternal Object.'
2. Whitehead's 'Subjective aim' in the becoming of a subject (a lure for feeling) can be compared with Tillich's more energetic being.

